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약속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Haggai 1:12-15]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3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15 때는 다리오왕 이년 유월 이십 사일이었더라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과 내면에서 오는 저항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재건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전재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분께서 힘주신다는 확신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한 격려를 받습니다.

1, 백성들의 두려운 반응: 오늘 설교본문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실한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예전에 불순종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유다 백성들은 학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본문 12절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존경심, 경외심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서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역시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중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순종 아니면 무시와 거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2, 학개가 주는 위로의 확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행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학개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인 그리스도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외톨이처럼 홀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본문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무시키셨는지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도록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리고 그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